

오수·의견문화제 대성황

최대 3만여명 관광객 몰려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의견문화제가 성황을 이루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개개인 생가지 터울림 전야행사를 시작으로 6일까지 오수의견공원과 의견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진 의견문화제에 3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의견문화제에는 어린이 날을 전후한 연휴를 맞아 반려견과 함께 축제를 보러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의견문화제는 의견의 발상지인 이곳 오수에서 살신구주(殺身求主)의 의견 설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오수개'의 보은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지역축제다. 특히 최근에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부각되고 있는 바깥집안 애견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의견문화제를 통해 전국의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의견문화제가 많은 반려인들이 몰리면서 성황리 이루어졌다.

반려인들을 한자리에 모여 흥과 재미를 더한 축제였다라는 평이다.

더불어 의견문화제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 오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려동물 문화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의견문화제는 반려인들의 이야기가 더해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이번 축제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의견문화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임실을 대표하는 지역축

제로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의견문화제는 오수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는 임실의 소중한 축제로 의견의 고장 오수의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서 많은 반려인들이 찾는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었다"며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오수가 세계적인 애견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산업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견문화제는 반려인들의 이야기가 더해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이번 축제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의견문화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임실을 대표하는 지역축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7월 말까지 등록

순창군은 지역경제 침체로 관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에 앞서 오는 9일부터 7월 말까지 가맹점 등록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순창사랑 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오는 8월부터 1만원

권 1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가맹점 등록 대상은 마트, 음식점, 제과점, 카페, 이·미용실, 병원·약국, 세탁소, 학원, 의료점, 문구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관내 모든 업소가 해당한다.

특히 군은 2012년 당시 제기된 금융기관에서 환전 시 수입 소요하고 있다.

환전 기관 1곳 운영으로 인한 환전

불편, 낮은 환율 등 상품권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가맹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했다.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가맹점 확보가 중요하다"며 "관내 모든 자영업자가 가맹점 등록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역사기록 찾기' 민간기록물 공모 수상작 선정

조선시대 삼인대 입안절목 등 87점 '대상' 수상

순창군이 최근 민간기록물 공모전을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0명 등 총 17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순창군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훼손되어 가는 순창의 모습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순창 역사기록 찾기' 민간기록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59명이 응모하여 222건의 기록물이 접수됐다.

심사결과 대상에는 1873년 '삼인대 입안절목'을 포함하여 1818년부터 1901년까지 삼인대와 관련된 총 87점

의 기록이 선정됐다. 삼인대 기록은 순창의 절의(節義) 정신과 정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는 한국전쟁 참전 학도의 용군 신고서류와 1960년대 면민장 장례 사진첩 등 적성면 행사 사진 16점이 선정됐다. 우수상으로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인 시권과 교지 17점, 순창의 감오동학혁명 및 독립운동 관련 인사의 행적집 등 19점 등이 선정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조합법인과 협약

남원시농업기술센터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인 남원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을 모으기 위해 최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영체 조직화 및 신기술보급 컨설팅을 통한 농업인의 기술향상과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통합 마케팅 및 산지유통의 활성화가 합쳐져 남원시농업 경쟁력 향상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협약 내용은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정보 공유로 농가소득증대 △농업경영체 조직화, 교육, 신기술보급 컨설팅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친환경 농업 육성 △6차산업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7일 5월 청원조회 및 직원특강을 열었다.

임실군, 민선 7기 역점사업 추진 재다짐

임실군이 민선 7기 출범 일주년을 앞두고, 역점사업의 빈틈없는 추진과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의 자리를 가졌다.

군은 7일 문화회관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 읍면장,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중 청원조회를 개최했다.

심 군수는 이 자리에서 "민선 7기 일주년을 앞둔 5월은 역점사업이 가시화되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군정 추진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민

선 7기 역점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지역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중심 행정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내실있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보안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심 군수는 또한 "올해 임실N치즈축제의 슬로건이 '맛있는 치즈(chesse)~ 웃음꽃 피자(pizza)'로 확정되었고 축제 개최 4년 만에 정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작년 보다 더 나은 축제를 위해 분야별

임실=진홍영 기자

준비사항 및 부족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사항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청원조회에는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초빙되어 "자치분권과 성공적 혁신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심 전 차관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과 국가발전에 대한 강의로 임실군 공직자들의 바수갈채를 받았다.

심보균 전 차관은 전북 김제출신으로 전주교과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하여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및 전라북도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지방자치 및 분권 분야 전문가로 꼽혔다.

현재는 국립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석좌교수 재직 중이며 지방자치 발전 정책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서부산림청, 예산집행 현황 회의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관리 분야 예산조기집행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청은 금년에 195억원을 투입해 총 2,615.5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며, 현재 66억원을 들여 약 760ha 사유림을 매수했다.

이 사업은 국유재산관리분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부청에서는 실무자들이 함께 참석해 4월말까지의 국유재산관리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도출했다.

서부청 관계자는 "사유림매수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읍, 독거노인에 선물 전달

임실읍(읍장 홍효덕)은 7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외롭게 생활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카네이션과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임실읍 복지팀을 임실읍 취약계층 어르신 25가구(임실을 20가구, 성수면 5가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또한 손쉽게 드실 수 있는 먹거리 선물 꾸러미를 한어를 전달하고 있다.

어르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정서적 위로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사정이 있어 찾아오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슬스스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손을 잡아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경찰, 구호 유공자 표창

남원경찰서는 7일 중앙지구대에서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응급 후송하고, 흉기로 자해한 정신질환자를 구호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은 지난 4월 26일 남원시 광학로에서 타인에게 욕설과 폭언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응급 입원시킨 중앙지구대 하태우 경위와 4월 30일 남원시 봉암1길에서 과도로 자해한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병원에 후송한 중앙지구대 이주승 순경이 주인공이다.

하태우 경위는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는데 표창을 받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서 어린이날 행사 성황리

남원시는 어린이날 환금연휴를 맞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남원의 관광명소인 사람의 광장과 구역사 및 예루림 등지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가했으며, 축제 첫날인 4일에는 사랑의 광장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유모차 타고 행진, 모범어린이 표창, 남원역 사탕아 그리기 대회, 각종 체험 행사, 기관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치러졌다.

5일에는 구 남원역사에서 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가족노래자랑, 댄스 동아리 공연 등

총 36개 체험행사가 열렸다.

가족노래자랑에는 15개 팀이 참가해 아름답고 애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소속 댄스 동아리 10개팀도 끼와 재능을 한껏 펼쳤고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청소년수련관을 개방해 3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했다.

임정숙 남원시 담당관은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가 연휴동안 계속되어 풍성하고 의미있는 축제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